인터뷰 신임 부총장을 만나

지역특수성 이용 발전 모색 필요

배 태 영
〈의대·영문〉

"저보다 학문상으로나 대학교육경험으로나 선배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부총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직책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라며 배태영(의대·영문) 신임 수원캠퍼스 부총장은 취임소감을 밝힌다.

배태영 신임 부총장은 지난 53년 본교 영문과를 졸업하며 73년 본교 조교수로 배임, 88년 의대학장을 거쳐 본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부총장에 취임되었다.

중부학과 문제에 대해 배태영 부총장은 "서울캠퍼스와는 다른 지역 특수성을 이용해 발전을 모색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말하고 "공대를 시금 수준으로 올려 다른 대학도 공대를 표본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현재 기획실에서 준비 완결 상태"라며 수원캠퍼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배태영 부총장은 "대학의 사명이 학문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에 지원을 해야된다"며 학문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지난 1학기째 나타난 교수·학생간의 불화에 대해 배태영 신임 부총장은 "어려운 문제든 근시안적으로 보지않고 종합적인 판단력을 동원해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면 사제지간의 불화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단과대학의 장으로서의 사야를 초월해서 전체 캠퍼스의 관리자로서 모든 교수님들의 가까운 친구로서 새로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말을 마쳤다.

〈이강숙 記者〉

前 부총장 퇴임의 변

김 봉 걸
〈공대·화공〉

예순다섯이란 결코 짧지않은 세월인데 어느덧 제가 예순다섯의 나이를 먹게 되었으니 새삼 세월의 빠름과 어김없음을 실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37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세번 바뀌고도 또 한바퀴 거의 바뀌는 긴 세월이 것입니다.

그동안 경희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처음 재임했을 당시 보잘것 없는 작은 건물 서너채 단이 빌딩계 할뿐은 고층산 기슭에 덜렁 서 있던 그모습은 이제 수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외국의 명문대학과 비교해 보아도 조금도 손색없는 국제적인 수준의 전당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또 비온 뒤끝에는 진흙탕 투성이던 수원캠퍼스도 불과 10여년만에 서울캠퍼스에 못지않는 훌륭한 캠퍼스로 변모하였습니다.

천무상일청, 맑은 하늘이 3일 이상 가지 않는다는 속담과 같이 그동안 여러가지의 정치사회적인 불안, 동요, 혼란이 있어도 오로지 대학에만 몰입아 왔기 때문에 천리등풍과 같은 즐거운 인생을 보낼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생을 더욱 값지게 살아갈 터

에이버리는 인생에서 우리들이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사느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이제부터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유익하고 값지게 살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언있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절 동안의 여러분에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서 퇴임사에 가름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희와 사회각계에서 훌륭한 인재로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오랜기간 보직을 맡게 되어 보직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유지하게 오늘을 맞게 된 것은 이렇게 사느냐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이제부터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유익하고 값지게 살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무접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엄마전의 황영조선수의 마라톤 제패,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과학위성 우리별1호의 성공적 발사 등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희망에 찬 우리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 뿌듯한 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이나라 일들이 이렇게 아무 일없이 잘 풀려만 준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꽉 그렇지만은 않다.

정경유착의 외혹을 불러 일으킨 민자당 중앙 교육원 터의 극비 매각사건, 제일생명 정보사 부지 매입사건, 노원을 선거구에 대한 14대 총선부표시 재검표 결과 당락이 뒤바뀐 사건, 고고학계 발굴 비리 폭로사건의 파문, 신 평수대교 건설중 붕괴사건,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여러의혹들 불과 일마지지 않는 기간동안 너무나 일렀나고, 잃고의 범행의 여지조차 없는 많은 시간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기사건이 일어나도 몇여단위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무리의 통은 커졌다. 원만한 삶인사건 가지고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사고는 무감각해 졌다.

사회전반에 퍼버섯처럼 퍼져있는 부정부패는 서로서로 줄을 얽어 가면서 바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왜 국민들이 삶기가 힘들다고 하는지 정부와 민자당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황 수 현
〈철학·2〉

폐지 재활용 제대로 안돼

자기부터 분리 회수 참가해야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표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때 부터인가 이 말이 우리 주변을 떠돌기 시작했는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다시 재생해서 쓴는 것 정도라고는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지만 생각만큼 실천이 잘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학교만 보더라도 1학기(5월) 부터 학교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나오는 종이류만이라도 모아서 재생시켜보자는 취지로 '폐지 분리 수거'를 실시하였지만 흐보의 부족, 이까지 종이 한장 모아서 무엇하겠느냐는 외식 닷인자 잘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온 실천으로 나라심림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이 주 연
〈식영·3〉

'빈활' 인식부족 안타까워

올바른 삶을 배우는 기회되길

지난 8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는 노점상 철거에 관한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 서울시가 지난 6월달부터 시내의 음식물을 조리해서 파는 1천 8백여개의 포장마차를 생계지원형, 단속대상형, 취업알선형으로 분류한 뒤 전날 저녁 경찰병력의 지원속에서 신촌 네거리등에 강제철거를 실시한 것에 대한 보도였다.

이런 처절한 삶의 현장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빈민들이 함께 했었다. 바로 빈활이라는 약간은 생소한 이름으로.

빈활이란 빈민(하층연대)활동의 약칭이다. 처음 빈활은 철거지역에서 실시되었다. 88년 겨울 신가촌에서 타학교의 10여명이 처음으로 수행하였으며, 본교는 작년 겨울에 한국외국어대, 서울여대와 함께 동대문지역 노점상연합회(동노련)에서 합치게 동계빈활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91년부터 임상적, 지속적 빈활의 수행을 위해 시작한 하루빈활과 하계빈활도 잘 진행시켰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활이나 다른 연대활동에 비해서 아쉬움이 남는 면도 있다.

벌써 많은 하우들이 빈민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 서운함마저 생긴다. 빈민을 단순히 '돕사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민의 개념 규정은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자'라고 한다. 상용직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과 퇴직후의 연금 그리고 해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비해서 임용노동자는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고 철거민이나 노점상의 경우도 정부의 강제철거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런 규정속에서 볼 때만이 구조적 모순으로써 빈민을 볼수 있고 빈활연대라는 빈활의 진정한 의미를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책에서 보아왔던 민중의 투쟁적인 모습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리고 빈민에게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으나 빈활의 의의가 없다고 하는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한다. 그럼때만이 민중의 변혁지향성은 환상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구현될 것이다.

빈활은 건강한 민중들의 삶을 접하고 그속에서 올바른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빈민과 하우들이 상호연대속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장이다. 그런 빈활속에서 우리의 극복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떠할지.

박 정 우
〈정외·2〉

습 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

【서울캠퍼스】 ▲학생증=▲홍경현(경제·91) ▲손범상(무역·90) ▲김상훈(무역·92) ▲김성연(무역·89) ▲박응규(회계·92) ▲안효숙(영교·90) ▲홍창용(미교·91) ▲조종기(한의예·88) ▲이선주(약·90) ▲김경미(약·91) ▲이동원(체육·87) ▲홍순만(체육·91) ◆도서대출증=▲정은선(지리·89) ◆검은색우산=▲김상훈(경영·4) ▲손정일(경영·4) ▲유주협(무역·3) ▲김희준(무역·4) ▲황정혜(회계·2) ▲서현주(식영·1) ▲이인숙(식영·4) ▲공현정(식영·2) ▲김주예(의예·2) ▲김기연(간호·4) ▲한의대 학생회 ▲정재근(기악) ▲한무영(삼의원) ▲손은배(삼의원) ▲이호병(삼의원) ▲송규태(삼의원) ▲한승록(삼의원) ▲홍광의(삼의원)

【수원캠퍼스】 ▲박병삼(일문·2) ▲송기국(불문·3) ▲윤정아(중문·3) ▲김민정(행정·3) ▲이덕규(경영·4) ▲손정일(경영·4) ▲유주협(무역·3) ▲김희준(무역·4) ▲황정혜(회계·2) ▲서현주(식영·1) ▲이인숙(식영·4) ▲공현정(식영·2) ▲김주예(의예·2) ▲김기연(간호·4) ▲한의대 학생회 ▲정재근(기악) ▲한무영(삼의원) ▲손은배(삼의원) ▲이호병(삼의원) ▲송규태(삼의원) ▲한승록(삼의원) ▲홍광의(삼의원)

【수원캠퍼스】 ▲박병삼(일문·2) ▲송기국(불문·3) ▲윤정아(중문·3) ▲김민정(행정·3) ▲이덕규(경영·4) ▲손정일(경영·4) ▲유주협(무역·3) ▲김희준(무역·4) ▲황정혜(회계·2) ▲서현주(식영·1) ▲이인숙(식영·4) ▲공현정(식영·2) ▲김주예(의예·2) ▲김기연(간호·4) ▲한의대 학생회 ▲정재근(기악) ▲한무영(삼의원) ▲손은배(삼의원) ▲이호병(삼의원) ▲송규태(삼의원) ▲한승록(삼의원) ▲홍광의(삼의원)

【수원캠퍼스】 ▲박병삼(일문·2) ▲송기국(불문·3) ▲윤정아(중문·3) ▲김민정(행정·3) ▲이덕규(경영·4) ▲손정일(경영·4) ▲유주협(무역·3) ▲김희준(무역·4) ▲황정혜(회계·2) ▲서현주(식영·1) ▲이인숙(식영·4) ▲공현정(식영·2) ▲김주예(의예·2) ▲김기연(간호·4) ▲한의대 학생회 ▲정재근(기악) ▲한무영(삼의원) ▲손은배(삼의원) ▲이호병(삼의원) ▲송규태(삼의원) ▲한승록(삼의원) ▲홍광의(삼의원)

동문모임

중앙고 동문회

【서울캠퍼스】 ▲중앙고=오는 8일 오후 6시 본관 앞 계단 ▲영등포고·여고=오는 8일 오후 5시30분 이마레우스

【수원캠퍼스】 ▲중앙고=오는 7일 오후 5시30분 광대휴게실 ▲대광고=오는 7일 오후6시 외대앞 학생식당 ▲안양·범일고=오는8일 오후 5시30분 광대휴게실 ▲반포고=오는9일 오후 7시 금문 ▲경문고=오는9일 오후 7시 서울린던호프 ▲전주·전주여고=오는8일 오후 5시40분 학생식당 ▲영락고=오는 8일 오후 5시30분 광대휴게실.

얼굴

분 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

【수원캠퍼스】 ▲신기철(러어·1)=배드민턴·라켓, 지난 2일 체대안에서.

등 기

동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황은진(국문·3) ▲김정미(국문·3) ▲서대숙(지리·3) ▲이광태(화학·4) ▲김백산(법·1) ▲송규태(법·1) ▲이병철(행정·2) ▲조분식(신방·1) ▲전찬우(경제·4) ▲김희관(경제·4) ▲김종석(경영·1) ▲윤기환(경영·2) ▲조정식(경영·3) ▲안의근(경영·4) ▲최준의(경영) ▲지용구(경영·2) ▲김상훈(국관·1) ▲권순익(우주·4) ▲이용주(화학·4) ▲정경숙(수학·2) ▲김경희(화결·2) ▲박종필(화공·3) ▲오부경(전산·4) ▲김승범(원자·1) ▲김봉래(전자·3) ▲최철열(기계·3) ▲이광수(유전·3) ▲최남일(기계·3) ▲전영상(기계·3) ▲심창열(기계·2) ▲정진국(전산·1) ▲김귀열(식가·2) ▲신언아(식가·3) ▲송용주(유전·3)

동문모임

중앙고 동문회

【서울캠퍼스】 ▲중앙고=오는 8일 오후 6시 본관 앞 계단 ▲영등포고·여고=오는 8일 오후 5시30분 이마레우스

【수원캠퍼스】 ▲중앙고=오는 7일 오후 5시30분 광대휴게실 ▲대광고=오는 7일 오후6시 외대앞 학생식당 ▲안양·범일고=오는8일 오후 5시30분 광대휴게실 ▲반포고=오는9일 오후 7시 금문 ▲경문고=오는9일 오후 7시 서울린던호프 ▲전주·전주여고=오는8일 오후 5시40분 학생식당 ▲영락고=오는 8일 오후 5시30분 광대휴게실.

분 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

【수원캠퍼스】 ▲신기철(러어·1)=배드민턴·라켓, 지난 2일 체대안에서.

— 고 침 —

지난 1001호 1면의 공대 연구실험지원 센터를 연구·실험지원센터로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공과대학 학생 뿐만아니라 경희대학교 모든학생의 이용이 가능 합니다.

지난주 4면 교수동정란에 김완정교수를 김연종교수로 바로잡습니다.

내가하는 공부

인간을 위한 진정한 학문

전 억 한
〈신대교수·식가공〉

식품가공학과에서 연구를 하며 감의를 시작한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간다. 처음에는 대학원생들이 실험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애를 먹었다. 대학원생들과 같이 종로에 가서 직접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제작 의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정도 연구를 수행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주로 미생물학 및 생물공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크게 나누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 Bioconversion (생물대사)
ii) Antagonistic microorganism (길항세균)
iii) Enviornmental control (환경)

첫째, Bioconversion에서는 미생물세포를 이용한 sorbitol의 생산에 관한것이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발효조(bioreactor) 내에서 fructose를 Z. mobilis라는 미생물이 섭취하여 D-sorbitol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D-sorbitol은 그자체를 식품산업에서 대량 이용하지만 Vitamin C의 전구물질 이기도 하다.

둘째, 최근 들어서 농산물 병충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무공해 농약 개발쪽이 일고 있다. 그 원인으로 비닛에 많은 피해를 주는 세균이 Pseudomonas tolaasii 인데, 이세균은 항생제에 의해서도 쉽게 control이 되지 않고, 버섯 수확량의 약 50%에 달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병원성 세균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소위, 길항세균(antagonistic microorganism)을 분리하여 대량 배양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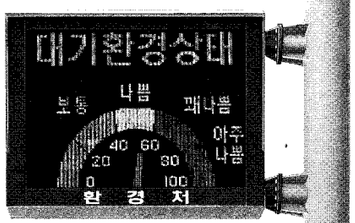
셋째로 polymer biodegradation 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썩는 비닐에 관한 연구이며,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였으나 아직 성공사례는 많지는 않은 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bacteria 나 moulds 중에서 polyethyleneglycol (PEG)과 같은 polymer를 분해 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마생물로는 Pseudomonas 속이다. 즉, 분해성의 polymer (PEG)와 다른 물질도 가능함)를 PVC와 혼합하든지 또는 분해성의 polymer만을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비닐을 만드는 것이 연구의 목표지만 본 연구실에서는 여러가지 polymer의 biodegradability에 관한 실험을 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임에도 1년 또는 길어야 2년에 연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에서는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연구소 엔진설계부 설계 2과
이 주 한

이주한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둘러야만 했다.
통근버스가 시청앞을 지나칠 무렵,
여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쁨"

용인군 마북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시내를 벗어난 통근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업무는 엔진설계의 제어부분…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쁨'이란
글자가 머리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번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번엔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을 가리키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때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늘 씁쓸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도 고쳐질 수 있으리라.

창사 25주년 HYUNDAI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③

좋은 환경, 좋은 차
HD 現代自動車